

르노만의 혁신 디자인 철학... 강화된 '상품·서비스' 묻어나

르노코리아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가
방문객 접점 확대 차량 시승 행사
야외 광장서 '르노 시티 로드쇼'

“디자인적 관점으로 차량을 즐겼으면 좋겠다.”

르노코리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한 디자인 철학을 공유하고 르노 익스피리언스 밸류업을 통해 강화된 상품과 서비스 알리기에 나선다.

르노코리아는 7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개막한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본전시(주제전) 중 테크놀로지관(1관)에 전시관을 마련했다. 르노의 디자인 철학, 미래의 방향, 차량 디자인부터 실제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의 접점확대를 위해 차량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시승행사도 준비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차량 위에서 선보이는 ELECTRO POP(일렉트로 팝)으로 르노의 로고인 '로장주'와 르노코리아의 엠블럼인 '태풍의 눈'이 각도에



7일 개막한 제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르노코리아 전시관에 전시된 XM3.

따라 교차되어 보이는 조형물이다. 하나의 조형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엠블럼은 프랑스와 한국이 만나서 문화적, 기술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날 전시장에서 만난 김민영 르노코리아 수석디자이너는 “모터쇼는 차량에 관심있는 관람객들이 많지만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디자인적 관점으로 차량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의 눈 로고를 사용하고 있지만 르노 본사와 긴밀하게 디자인 작업을 하

고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다양성과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 전시된 XM3E-TECH 하이브리드는 차량 디자이너들이 목업 차량에 라인테이프로 선과 면을 다듬으며 새로운 차량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도록 랩핑되었다. 또 디자이너들의 실제 스케치를 담은 디자인 월과 제작생산 과정을 담은 영상까지 선보이고 있다.

르노코리아의 SM6를 비롯해 QM6,



르노코리아 김민영 수석 디자이너.

XM3 등은 공개와 함께 실내의 디자인에 대해 주목받았다. 특히 XM3는 SUV이지만 스포츠세단의 날렵한 느낌을 담아 세련된 모델로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전문기자협회로부터 디자인상을 받은 바 있다.

김 수석디자이너는 “신차 개발 과정에서 르노만의 새로운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다”며 “익숙함을 갖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보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주도한 르노디자인센터 서울의 벤상 페트리티 디렉터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르노를 선보이고 싶었다”며 “많은 방문객들이 르노를 즐기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서는 9월 10일까지 ‘르노 시티 로드쇼’를 진행한다. 새롭게 발표한 르노 익스피리언스 Value up을 통해 강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은 르노코리아 전 차종 시승 및 구매 상담뿐 아니라, 새롭게 적용된 스마트워치 앱 체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과 광주를 거친 ‘르노 시티 로드쇼’는 10월 9일까지 대전, 경기(기흥), 부산(김해)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을 만나다(Meet Design)’라는 주제로 열리며 LG전자와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약 200여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266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양성문기자 ysw@metroseoul.co.kr

F-가스 통합법 필요... 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 절실

냉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없어
부처별 나눠진 업무 한 데 모아야
韓 아직도 냉매 관리 걸음마 단계

콜드체인 산업에 필수적인 염화불화탄소(CFC) 계열, 수소염화불화탄소(HFC) 계열, 수소불화탄소(HFC) 등 구세대 냉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려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맡은 업무를 한 곳에 모아 냉매 수입부터 회수 및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산업부는 냉매의 수입 등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폐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한다”며 “냉매가 수입됐을 때부터, 그리고 사용한 뒤 폐기하는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냉매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냉매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으니 지금까



양의원영·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 토론회’에서 사회자와 토론자의 모습. /기후변화센터

지 얼마나 배출됐는지, 감축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다. 최근 유럽이나 일본도 계속 냉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입법 조치를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냉매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F-가스(불화가스) 통합법 같은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은 경제산업성·환경성·국토성 등 관계 부처 통합으로 냉매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냉매 관리가 걸음마 단계다. 실제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 실적은 3년 평균 0.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총장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

동차를 폐차하면 폐냉매에 철제 부품까지 다 가격 처리를 해준다”며 “반면, 한국은 폐차를 하면 그 폐차 한 대 가격으로 끝난다. 업자들이 굳이 폐냉매를 회수해야 할 유인책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냉매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열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의원영 의원의 보좌진은 이날 통화에서 “냉매 관련 통계나 친환경 냉매 전환 시 지원을 해주는 입법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문제 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하는 콜드 체인 산업의 관점에서, 친환경 냉매 개발과 전환에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인 한국의 기업들의 활동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의원영·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 토론회’에서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 회장은 HFC

계열 냉매를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합산하지 않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기준과 이를 포함하는 글로벌 ESG 기준이 상충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신뢰 저하와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은 “자연냉매 냉동장치는 독성과 가연성, 높은 압력 때문에 고도의 기술역과 제조역량이 필요하다. 생산단가가 높아 기존 HFC 계열 냉동장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다”며 “한국은 자연냉매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개발 및 제조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로, 현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방안 없이 HFC 계열 감축이 시행되면 국내 콜드체인 냉동장치 관련 제조업이 선진국 수입 완제품에 밀려 파괴된다”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해외 시장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친환경 냉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기존 프레온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를 포함하고, 전체 보조금의 규모는 최소 500억원으로 사업체 전체의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웅 기자 pth7285@

韓 기업·자영업자, 고금리에 회사채보단 '은행 대출'

한은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2분기 산업별대출 잔액 1842.8조

2분기(4~6월)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이 24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길어진 고금리 상황에 회사채보다 은행을 찾아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2분기(4~6

월) 산업별대출 잔액은 184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24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4분기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회사채 발행의 메리트가 줄었다”며 “기업들이 자금마련시 회사채발행보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더 선호하며 대출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증가폭은 축소

된 반면 서비스업은 확대됐다.

제조업 대출금은 44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6000억원 늘었다. 전분기 증가폭(11조원)보다 축소된 수준이다.

서 팀장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며 운전자금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의 대출금은 118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4000억원 늘었다. 금융·보험업은 신탁계정 어음 매입

대출이 축소되고, 금융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늘어난 영향이다. 부동산업 역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며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시설자금의 증가폭이 확대됐다.

운전자금은 임금·이자 등의 지급, 원재료 매입 등을 목적으로 실행된 단기대출을, 시설자금은 건물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를 목적으로 실행된 장기대출을 말한다.

운전자금은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제조

업 증가폭이 축소돼 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증가폭(11조4000억원)보다 축소된 수준이다.

시설자금은 제조업 중 반도체, 자동차업의 시설투자 등이 늘고,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15조원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폭이 17조4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나유리 기자 yu115@